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Monthly Newsletter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매월 정리해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board's agenda 5월호

끝나지 않은 이야기: CEO 승계계획

- 본 보고서는 CEO 승계계획 관련 이사회가 전략 개선 방법을 제시함
- 효과적인 CEO 승계계획 전략은 회사의 장기 비전을 실행하고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변혁적인 리더십을 지닌 CEO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사회는 차기 CEO 선발 시 과거 고정된 특정 관점을 가진 강력한 리더보다는 혁신에 대한 개방성, 겸손, 민첩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우선시하고 있음
- CEO 승계계획 프로세스 관점에서 이사회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이사회는 새로운 CEO 선발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치펌 또는 기타 외부 컨설턴트 고용과 같이 제3자를 활용할 수 있음
 - 연장된 CEO 승계계획 프로세스가 현직 CEO 및 회사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시기를 결정함
 - 다른 C-레벨 경영진의 시각을 통합함으로써 내부 후보자의 리더십 품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함
 - CEO 후보로 내부 후보자와 외부 후보자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함
- 선발되지 않은 후보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필요한 질적 요건을 갖춘 후보라도 시기에 따라 CEO 역할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되지 않은 후보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우수 인재 유출을 초래할 수 있음
- CEO가 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음
 - CEO 급 역할에 특화된 코치 및 멘토와 협업을 수행함
 - 다른 회사의 이사회에 활동함으로써 거버넌스와 승계계획 간의 중요한 관점을 획득함
 - CEO 선발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가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지함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audit committee's agenda 4월호

감사위원회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감독 역할

- ▶ 2002년에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 법은 이사회 감독 의무 중 일부가 감사위원회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본법을 시행하는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은 상장법인들이 핫라인을 도입하여 다양한 우려 및 불만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직원들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궁극적인 거버넌스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됨
- ▶ 감사위원회는 특정 컴플라이언스 영역을 감독하기에 적합한지를 고려함으로써 주요 리스크 관리 감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음
 - 금융 및 회계 사항과 관련되지 않는 특정 유형의 리스크는 보상위원회 또는 임원후보추천/거버넌스위원회가 더 적합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음
- ▶ 감사위원회는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와 관련된 정보를 받고 검토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음
 - 심각도 및 관련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고서만 선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요 보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책임을 위임하거나, 다른 위원회나 경영진에게 제출된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음
- ▶ 경쟁사 벤치마킹 혹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평가와 같은 방법을 통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리스크를 살펴보거나 빅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평가 및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감독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가 해당 리스크를 최적으로 다루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영진에게 하기와 같이 질문할 수 있으며, 직원들에게 해당 프로세스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표1>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관련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문항
• 적절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규정이 없는 주요 리스크 요소가 있는가?
• 최근의 회사의 변화, 법률 또는 규정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규정이 업데이트되었는가?
• 규정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6.22 (목) 금융위원회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6.22)
- ▶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다운로드



별첨



QR 코드



구분	주요 내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금융사고에 대응하여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와 금융회사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사 스스로 각자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관심 및 책임 제고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임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 특정,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을 방지하는 원칙 구현 ✓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함 ✓ 대표이사는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 및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 부여 • 평소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이사회내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 구체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도약을 도모 • 기존 기준 마련의무에 관리의무가 추가됨으로써 금융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을 기대 • 임원 스스로 내부통제의 충실 수행 유도하며 이사회 감시기능 강화로 지배구조 견제와 균형의 원리 회복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구체화 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예정

- ▶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장)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 (금융감독원장) 제도개선이 잘 정착되도록 모범사례를 발굴, 금융업권과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강화 • (금융협회장) 입법과정에서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재, 면책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소규모 금융사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6.20 (화) 기획재정부

'23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64개국 중 28위 기록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함(6.20)

- 한국은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여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함
- 국가경쟁력 평가 4대 분야 중 '기업효율성' 분야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33위를 기록함

<표1>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전체 순위	27위	28위	23위	23위	27위	28위
- 기업효율성 분야	43위	34위	28위	27위	33위	33위
- 경제성과 분야	20위	27위	27위	18위	22위	14위
- 정부효율성 분야	29위	31위	28위	34위	36위	38위
- 인프라 분야	18위	20위	16위	17위	16위	16위

▶ '기업효율성' 분야의 주요 평가항목인 '생산성'(36→41위), '금융'(23→36위)은 하락하였으나, '경영관행'(38→35위), '노동시장'(42→39위) 및 '태도·가치'(23→18위) 순위는 상승함

<표2> 기업효율성 분야 주요 평가항목 순위

구분	경영관행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태도·가치
'18년	55	39	53	33	30
'19년	47	38	36	34	25
'20년	36	38	28	34	15
'21년	30	31	37	23	21
'22년	38	36	42	23	23
'23년	35	41	39	36	18

▶ 금번 IMD 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 노력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함

- 기업 설문 비중이 높은 기업관련 부문(경영관행, 태도·가치)에서도 기업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일부 반영됨
- 3대 구조개혁(노동·고용·연금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배가해 나갈 계획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6.15 (목) 금융위원회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대해 논의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2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은행 경영현황 공개보고서(안)에 대해 논의함
 - 현재 은행은 은행법령 등에 따라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요 목적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에 따라 쉽고 자세한 경영현황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구성안

구성	세부항목
은행 개요	• 은행 기본정보(총자산, 영업점 및 직원 수 등)
자산 / 부채	• 대출채권 구성 / 유가증권 구성 / 예수금 구성 / 차입금 및 사채 구성
수익 / 비용	• 이자이익(예대금리차 포함) / 수수료이익 / • 임직원 급여(성과급, 희망퇴직금 등 포함) / 사회공헌 실적 / 총당금
당기순이익 활용	• 자본적립 현황 / 배당현황

- ▶ 금년 3분기 중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세부구성을 확정하여 매년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차기년도 4월말까지 작성·공개할 예정임
- ▶ 금년 하반기 중 '22년 경영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할 계획*이며,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은행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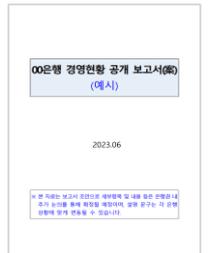
* '22년 경영 현황 → '23년 하반기 작성 / '23년 이후 경영 현황 → 차기년도 4월말까지 작성

- ▶ 대내외 관심도가 높은 임원 경영성과급,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퇴직금, 배당 등을 상세히 공시함으로써 성과급과 배당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시장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다운로드



별첨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6.14 (수) 금융감독원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 금융감독원은 2024년에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오류사례를 사전 예고함

▶ 2024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1.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대상업종) 쏠업종 (건설업, 조선업 제외)
- (선정기준) 자산총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업종 평균 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비율, 매출채권회전율 및 손실충당금 증감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금융상품 손상기준(K-IFRS 제1109호)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였는지 점검함

2. 전환사채(CB) 콜옵션

- (대상업종) 쏠업종
- (선정기준) 자산총액 대비 CB 잔액, 발행횟수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을 주석공시할 필요

3.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

- (대상업종) 장기공사계약이 많은 건설업, 조선업
- (선정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 대비 비중,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을 유의할 필요

4. 우발부채 공시

- (대상업종) 쏠업종
- (선정기준) 매출액 관련 총당부채 비율, 우발부채 관련 공시사항 등 고려하여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2023년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

▶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할 예정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6.13 (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공회·자본시장연구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세미나 개최

- ▶ 지난 6월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 상향이 실제 기업 내 횡령·배임의 통제에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평가함
 - 기업의 이행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 ▶ 정태진 IE University 교수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함
 - ‘19년부터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이 상향되었으나, 최근 횡령 사건 발생 등의 내부통제 무력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절차적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 제도에 비해 강화된 체계임
 - 인증수준 상향이 기업 횡령·배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함
- ▶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효과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무화는 시행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해관계자 간에 존재하였으나, 최근 횡령 및 배임 등 내부통제 절차의 근본적 위반 사례의 발생 등으로 인해 유의미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가중됨
 - ‘19년 이후 자본시장 전반의 횡령 및 배임 건수는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화한 기업집단에 의해 유도됨을 확인함

다운로드



QR 코드



<표1> 2019년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 상향의 효과성

구분	횡령·배임 발생확률에 미친 영향	부정 금액에 미친 영향
횡령	0.84%p 감소	평균적으로 1,986만원 감소
배임	1.04%p 감소	

-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및 감사 수검을 위한 기업의 이행부담이 급증해 온 영향도 확인된 바, 실효적 안착을 위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6.12 (월) 금융위원회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함

* 회계개혁평가개선추진단, 회계학회 공청회, 회계학회 연구구역 결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 논의를 종합 반영하여 마련

▶ 회계제도 보완방안 주요내용

구분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 유예 ('24→'29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금년부터 도입하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경우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 면제 중소 비상장사(자산 1천억~5천억)가 신규 상장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3년 유예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용 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한 직권지정사유를 정비 (現 27개 중 16개 사유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전환 회계부정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 <p>*①3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3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③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p> 주기적 지정제는 당분간 현재대로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 예정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서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하여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15명)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4명→2명),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 감사인의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지정감사제 합리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 정부에 지정취소 및 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함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는 폐지 전까지 판단기준을 연결에서 별도재무제표로 변경, 1년 ~ 3년의 최소 자유선임기간을 보장 적격성이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은 다음연도 지정 시 지정 기업 수를 차감하는 등 패널티 부과 예정

다운로드



별첨



QR 코드



▶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6.5 (월) 금융위원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 지난 6월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에 대해 밝힘

 - 최대주주의 추가 출현 없이도 지배력이 확대되는 자사주 마법, 자사주 맞교환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건전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 주주환원을 위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 현행 자사주 제도 관련 문제점을 되짚음
 -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점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할 것임
-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자사주 제도를 소개하고 검토 가능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영향을 언급함

 - 실무적으로 합병과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권리를 인정하는 점, 판례 등에서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을 다르게 취급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함
 - 자사주의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강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 자기 주식 처분 시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자사주 맞교환을 금지하는 방안, 합병 분할 시 자사주에는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등 주주 권리를 정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함
 - 그 외 시가총액 계산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거나,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함
-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 나갈 것임

다운로드



별첨



QR 코드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기업 지배구조 지표 준수율 개선 불구 집중투표제는 3%만 채택 [연합뉴스]
- 국내 기업, 지배구조 대체로 개선... '이것'은 부족했다 [파이낸셜뉴스]
- 한국 기업 ESG 성적, 선진국·주요 아시아국 중 꼴찌 [한겨레]
- ESG공시 앞두고 기업 분주한 움직임... 핵심은 '거버넌스' [데일리임팩트]
- 내부통제 핵심은 리스크관리... 올바른 문화 정립 필수 [아시아경제]
- 금융위 지배구조 개선안 또 밀릴 듯... '중대사고' 빠져도 '책임지도' 영향 커 [인베스트조선]
- 韓 대기업들 ESG 채권 발행 문의 줄이어... 정부, 세계 지원해야 [서울경제]
- 금융권 지배구조·영업관행 고친다더니... 금융당국 양대 TF 용두사미 전략 [조선비즈]



이사회·감사위원회

- '효율성 vs 독립성' 반영된 이사회 구조 [더벨]
- ESG 공시의무 확대... 감사위원회 감독 중요해질 것 [파이낸셜뉴스]
- 금융사 임원 책무 배분한 책무구조도 도입... 이사회 책임도 명확해진다 [노컷뉴스]
- 상장 중견기업 15.8%, 오너 일가가 이사회 과반 차지 [연합뉴스]
-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13일 '2023년 제2회 정기포럼' 개최 [헤럴드경제]
- 추가 발목 잡는 지배구조... 이사회 중심 개선이 핵심 [CEO스코어데일리]
- 지배구조 투명성 뒷걸음친 웅진... 감사기구가 발목 [블로터]
- 한국금융연수원, 20일부터 금융사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 [한국금융]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 딜로이트그룹, 제1회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서울경제]
- 딜로이트 안진, '1조' ICT 클러스터 재무자문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 한국딜로이트그룹, "2050년 전체 수소의 85%는 그린수소" [모빌리티뉴스]
- 딜로이트 안진·상장협, XBRL 재무공시 유의사항 설명회 성료 [머니투데이]
- 딜로이트, 2050년 청정수소 시장규모 1조4000억달러 전망 [전기신문]
- 딜로이트 안진, 일본계 기업 대상 한국 회계·세무 세미나 [한경코리ाम아켓]
- 딜로이트 안진, 글로벌 IB 한국대표 출신 M&A 전문가 영입 [이투데이]
- 젊어진 한국 딜로이트... 임원 승진 60%가 '1980년대생' [한경코리ाम아켓]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 규제 완화로 회계 투명성 후퇴... 정부 조치에 전문가들 연일 쓴소리 [뉴스1]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외감 도입 2029년으로 유예 [뉴시스]
- 대폭 강화되는 회계부정 감시... 기업들 이것 유의해야 [조세일보]
- 노조회계 결산, 매년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받는다 [연합뉴스]
- IFRS17 지침에도... 성과급 잔치 보험사들 회계조작 우려 여전 [연합뉴스]
-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 외부검증 기준 3억→1억원 [파이낸셜뉴스]



부정행위방지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 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이투데이]
- 끊이지 않는 농협 직원들의 횡령, 이유는? [시사저널]
- 금융당국, 주가폭락 부른 CFD 규제 손질 [MBC뉴스]
- 증권사 장단기 미스매치 전략에 칼 빼든 금감원 [연합인포맥스]
- 날 세운 검찰 분식회계 습격사건 [주간동아]
- 금감원, 보험사 회계상 이익 착시 논란 새 회계기준 세부 지침 마련 [KBS뉴스]



규제 동향

- 금감원, 보험사 외부검증 회계·계리 크로스체크 [더벨]
- 보험사 IFRS17 실손 가정 가이드라인 3분기부터 적용 [더벨]
-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소비자보호... 업계와 지속 소통할 것” [뉴스1]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투자사 내부통제 점검해야” [노컷뉴스]



M&A

- 공정위, M&A 신고 의무 완화... PEF 설립·일부 임원 겸임 등 면제 [파이낸셜뉴스]
- 8년 만에 저축은행 M&A 규제 풀린다... 이달 발표 [뉴스토마토]
- 매물은 쏟아지는데... 금융권, 보험사 M&A 손익계산 분주 [시장경제]
- M&A 때 같은 가격에 사줘야 하는 ‘의무공개매수’ 도입 초읽기... 대상 기업은? [조선비즈]
- 반토막 났던 M&A시장, 올 들어 사모펀드 보유 매물 줄줄이 나와 [아시아경제]

I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년 제1회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개최 결과

구분	내용		
일시	2023년 6월 21일(수) 07:30 ~ 10:00		
장소	서울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 (22F)		
프로그램	사회: 김학범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문본부 파트너		
	시간	내용	Speaker
	7:10 ~ 7:30	참가자 등록	
	7:30 ~ 8:00	조찬	
	8:00 ~ 8:05	환영사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8:05 ~ 8:35	세션1. 국내 환경을 고려한 이사회 ESG 감독	백인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 의장 / ESG센터장
	8:35 ~ 9:05	세션2.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	박재환 중앙대 교수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9:05 ~ 9:15	Break Time	
	9:15 ~ 9:45	세션3.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동향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장
	9:45 ~ 9:55	Q&A	연사 3인
9:55 ~ 10:00	맺음말		

다시보기

QR 코드



- ▶ 금번 세미나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당면한 주요 실무 수행 지원을 위해 기획됐으며, 국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아젠다로 구성되어 총 3개의 세션을 선보임

환영사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당면한 주요 실무 수행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음
- ▶ 향후로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다양한 활동 기획을 통해 지배구조와 관련된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회계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임

IV. 주요 행사

(계속)

Session 1. 국내 환경을 고려한 이사회의 ESG 감독

백인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 의장 / ESG 센터장

-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전환 가속화와 ESG 공시 의무 확대 흐름에 따라 ESG 리스크 및 공시 관련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ESG 공시·인증은 EU나 미국 SEC, IFRS재단 등에서 요구하는 공시조건들이 상이하고, 대상기업이나 공시 범위, 적용시기 등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임
- 선제적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가이드언스를 제시함으로써 이사회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제언함

Session 2.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최근 법률과 제도 및 각종 규정 그리고 환경과 공정 등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내부통제 감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강조함
-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사라면 준법지원인을 의무 선임해야 되지만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비금융사의) 약 60% 정도의 기업만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어 준법지원인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함
-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상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하여 보고받고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으로 표시되면 코스닥 종목의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되고 2년 연속 비적정인 경우에는 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부당국의 계도기간 종료후에는 향후 회계처리 위반 제재(회사 및 임직원 가중 제재)를 받게 되어 사외이사는 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담보하는지 면밀하게 감독해야 함

Session 3.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동향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글로벌 이사회의 주요 아젠다,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임기 규정, 인적자본 감독 현황, ESG 이사회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 임원배상책임보험, 사외이사 보수 등 국내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글로벌 동향을 살펴봄
-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5가지 감독영역별 감독 포인트, 전문성, 중시되는 교육 주제 등 국내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글로벌 동향을 설명함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강화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기업지배기구 선진화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

IV. 주요 행사

델로이트 Global Boardroom

[글로벌 서베이] Talent Frontier: 이사회가 인력의 미래를 형성하는 방법

- ▶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에서는 이사회와 관련한 글로벌 서베이를 통해 글로벌 권역의 이사회가 이사회 회의 및 집무 현장에서 '인재와 인력'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함
- ▶ 현재 이사회 아젠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인재와 인력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임

참여하기

QR 코드



이곳을 클릭하시면 서베이 링크로 연결 됩니다. (국문 문항 제공)
(2023년 7월 21일 마감, 약 10분 소요)

구분	상세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7월 21일 (금) - '23년 10월 17일에 웨비나를 통해 결과가 공유되며, 보고서는 이어 발간될 예정임
대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감사, C레벨 경영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미래는 신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광범위한 인구통계학적 변화, 직원의 예상 기대 사항, 비용 통제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압박 등 변화의 힘에 노출되어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산업 및 권역별로 걸쳐 발생하고 있음. 해당 변화에 따라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며, 기업을 리드하는 이사회는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함



I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웹 세미나] 기후변화 대응 무결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의장 가이드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7월 4일 (화) 오전 0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부탁드립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na Marks (Deloitte Global 이사회 의장) • Sharon Thorne (Deloitte Global 前 이사회 의장) • Simon Henry (Rio Tinto 사외이사) • Sarah Barker (세계경제포럼 기후변화 거버넌스 전문가 커뮤니티 공동의장 및 기후변화/지속가능성 위험 거버넌스 책임자) • MinterEllison, Rob Johan Adriaan Van Riet (세계경제포럼 자연/기후변화센터 수석자문위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무결성과 신뢰확보를 위한 접근방법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논의 예정 • 딜로이트 글로벌 및 기후변화 거버넌스 이니셔티브가 공동으로 작성한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상 기후변화 대응 무결성 확보에 대한 이사회 의장 가이드에 대해 전문가 패널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업 이사회가 조직의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활동의 무결성과 신뢰를 보장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향상하고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논의

신청하기

QR 코드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상세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은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QR 코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